

여호와께서 명령하심

■ 신명기 27장 1~7절

■ 28장(통28), 540장(통219)

■ 2018년 8월 17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시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 꼭 징계하셨습니다. 이 같이 하나님은 광야생활 40년을 통해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난관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작은 강이어서 평소에는 쉽게 건널 수 있었지만 당시는 우기 때라서 물이 넘치고 유속이 빨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었지만 이번에는 믿음을 써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돌비에 말씀을 기록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1~4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1절). 요단강을 건넌 후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2~3절).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돌같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돌비를 세우듯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돌같이 굳게 세워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4절).** 석회를 바르면 돌이 하얗게 되어 기록한 율법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돌비에 기록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10계명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잘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 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비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심비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영이 자라나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석회를 바르듯 우리의 심비를 깨끗하게 해야 말씀이 바로 새겨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일 1:8-9).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을 새길 수가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심비에 말씀을 새겨 말씀을 날마다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말씀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역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4절).** 모세를 통해 그리스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신11:29). 이것은 에발산의 저주와 징계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비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세계 안에서 살아, 날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5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제사를 드릴 제단의 돌이 제각기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

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므로,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말이나 지식적인 말,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지 말고, 중심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믿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6~7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6~7절). 제사를 드릴 때에 **첫째,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써 그리스도의 구속과 희생,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산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셔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롬 12:1). 산제사는 생명이 있는 제사,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제사를 말합니다.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말씀대로 드린 제사였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드릴 때에 산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으로 교통하면서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행해 영적으로 산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둘째,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7절)**. 화목제는 내장 일부는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가 화목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불에 태워질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행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해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돌비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비에 말씀을 깊이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석회를 바르는 것처럼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늘 자신의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산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여 우리 신승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영적 가나안 땅, 구속의 세계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석회를 바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1~4절).
2. 죄를 대지 말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5절).
3.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5~7절).